그리는 이의 태도

그리는 이의 태도

야심이나 유난과는 거리를 둔 채, 화가 문성식은 담담히 오늘의 그림을 그린다. 캔버스 위에 아름다움과 추함같이 상반된 것들을 펼쳐놓으며, 자연의 섭리와 사소한 일상을 담는다. 그의 개인전 <Life 삶>이 부산 국제갤러리에서 열린다. 작가의 작업실을 찾아 그림을 그리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정원과 두 남자', 2021, photo: 안천호 ⓒ 국제갤러리

그리기를 좋아해 스스로 미술 학원을 찾았던 아홉 살 즈음, "사람의 옆모습을 그릴 때는 눈을 하나만 그려야지, 왜 두 개를 그렸느냐"며 다시 그리라는 선생님의 말에 금세 흥미를 잃어버린 기억이 있다. 문성식 작가의 부산 작업실에서 "이 그림을 그릴 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즐거웠어요"라는 그의 상기된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 기억이 떠올랐다. 그리는 순간을 좋아하던 마음이 고통이 되고, 긴 시간 슬럼프와 가학의 시간을 보낸 작가의 마음을 어슴푸레 짐작해볼 수 있었다.

작가의 소담한 작업실에는 스크래치 기법으로 주목받은 대형 장미 연작이 가운데에 자리하고, 나무 벽에는 연필로 선을 낸 유화 드로잉이 배치돼 있었다. 2019년 국제갤러리에서 열린 전시 <아름다움. 기묘함. 더러움>에서 그는 기존의 섬세한 세필화와는 전혀 다른 기법으로 큰 호응을 받았다. 새로운 회화적 언어를 찾기 위해, 스스로 미술계와 멀어지고자 부산으로 간 그가 몇 년간의 긴 공백을 깬 전시였다. 마치 고대 벽화처럼 캔버스에 젯소를 바른 뒤 송곳과 칼 등 날카로운 도구로 긁어낸 장미 연작 '그냥 삶'은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 외에도 물감을 두텁게 올려 연필로 선을 낸 유화 드로잉 등 고유한 방식이 담긴 작품들을 다양하게 선보였다. 그 기법들을 한층 유연하게 체화한 이번 전시 <Life 삶>은 '그냥 삶', '그저 그런 풍경' 등 연작들과 100여 점의 유화 드로잉 신작들로 구성됐다.

작가로서 집요하게 그리는 행위와 방법을 고심하는 것을 너

문성식 1980년 경북 김천에서 태어나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에서 수학했다. 2005년 베네치아 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에 최연소 작가로 참여해 주목받았으며, 리움 삼성미술관, 두산아트센터, 하이트컬렉션, 소마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이번 전시는 2월 28일까지.

머, 많은 이가 문성식의 그림에 이끌리는 이유는 너무도 인간적인 시선 때문일 것이다. 그의 모든 출발점은 삶과 인간을 향한 연민이다. 할머니의 장례식, 어머니의 칠순 같은 자전적 경험이 빚은 풍경은 아스라이 일렁이는 감정을 소환하고, 벌레와 거미줄이 뒤엉킨 꽃 그림은 삶이 지닌 양면성을 드러내며 깊은 울림을 준다. 그는 17년여 전, 25세 화가 앞에 붙은 '베네치아 비엔날레 한국관 최연소 작가'라는 타이틀이 오랜 기간 그에게 그리는 즐거움을 앗아가고 압박과 두려움을 주었다고 수차례 언급한 적 있다. 하지만 전시를 앞두고 마주한 현재의 문성식은 앞으로 또 무얼 그리고 싶은지에 대해 담담하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 말들은 혼재된 고민과 방황에서 몇 발짝 나온 듯 보였고, 유난이나 포부와는 거리가 먼, 그저 그리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배어 있었다.

'정원과 나', 2021, photo: 안선호 © 국제갤러리

전시 제목이 <Life 삶>이다. <아름다움. 기묘함. 더러움>처럼 시적인 지난 전시 제목보다 넓은 관념이다. 시기마다 다른 주제로 전시를 구성하는 작가들도 있지만, 나는 늘 같다. 이런저런 제목을 생각해봐도 결국 자연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화가의 성향은 자신의 세계를 파고드는 이와 외부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는 이로 나뉠 수 있을 텐데, 나는 분명 후자다. 아주 심심한 대상이라도 그리고 싶어지면 직관적으로 그린다. 동네 마트 앞에 청매화가 피면 그리고, 화병에 꽂아둔 꽃이 시들면 시든 모양대로 그린다. 그런 그림들로 이루어진 전시다.

캔버스 속 시점을 과거 어린 시절의 경험이 아닌, '지금'으로 옮긴 것 같은 느낌도 든다. 무얼 그릴 것인지에 대한 관점이 변했다. 예전에는 '왜 그렸나?'에 대해 쉽게 답하지 못해 괴로웠다. '그냥 아름다워서, 그냥 좋아서' 그린 건데, 현대미술은 철학을 요하는 것 같아 답답했다. 스스로 몰아세우며 한 가지 대상을 반복해 그리지 않으려 했고, 늘 죄책감을 느꼈다. 그렇게 오랜 슬럼프를 겪었다. 기억 속 강렬한 장면을 찾고자 했지만 쉽지 않았다. 지금의 나는 어릴 적만큼 즐기면서도 섬세한 필법으로 그릴 수 없는데 그 시절 더 많이 그리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까웠다. 이제는 반복의 미덕을 알게 됐다. 매일 그리던 걸 또 그리면서 나은 그림을 그릴 단서를 얻곤 한다.

이번 전시에 주로 선보인 연필 드로잉 작업은 과거의 세필화와 비슷한 듯 다른 느낌이다. 대상에 대한 인간적 시선은 여전하지만 물감을 파고드는 '선'의 형태가 색다른 인상을 준다. 지난 전시에서 작가로서 모든 세팅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싶었다. 무엇이 나다운 그림인지 깊이 고민했는데 그 답은 결국 '선'이었다. 연필로 선을 긋는 행위는 내 작업의 근간이고, 내게 연필을 쥐는 일은 결국 무슨 선을 그을지에 대한 문제다. 물감을 두텁게 올려 돌 표면처럼 거칠게 만들고, 그 위에 선을 그으면서 저항을 만들었다. 하나의 선을 노력해 애써 새기는 것. 새기는 행위에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 이런 방식이 내 기질과 잘 맞았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유롭게 그리고 싶었다. 항상 캔버스를 꽉 채우는 구성을 따랐는데, 가장자리에 여백을 남겨두었고 물감이 마르기 전, 마르는 시간에 차이를 두면서 그렸다. 그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강박감 없이 노는 것처럼 그리는 순간들이 더러 있었는데 그 기분이 너무 좋았다.

스크래치 기법을 새롭게 선보인 대형 장미 연작 '그냥 삶'이 특히 큰 주목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고수하거나 변주를 주었나? '잡감雜感'을 더하고 싶었다. 지난 전시에서는 기법을 바꾼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스크래치를 낼 때 지금보다 조심스러웠는데, 이번에는 얽히고설키면서 좀 더 거친 느낌을 주고자 했다. 늘 작품 안에서 노골적인 것과 서정적인 것이 공존하길 바라기에, 어느 한쪽으로 기울 때마다 그 기준에 유념해 작품을 완성하고자 한다. 나비는 실사 프린트를 콜라주한 뒤 선을 덧그려 잎 위에 레이어드한 듯 표현한 것이다.

경북 김천에서 태어나 포도밭에서 놀고 마당 한편에 있는 공작과 튤립, 카나리아를 바라보며 자란 유년 시절이 잘 알려져 있다. 감정이 무척 섬세한 아이였을 것 같다. 어릴 적에는 물고기, 토끼를 잡고 버섯을 따러 다니며 세상을 그저 아름답게 바라봤다. 서울의 예고에 진학하면서 빈부 격차, 위계 같은 것들을 처음 맞닥뜨렸고 그때 삶의 양면성 같은 것을 깨친 것 같다. 도시의 번듯한 사람들을 보다가 고향에 가면 농사짓는 고단한 사람들을 보게 되고, 혼자 '세상은 왜 이럴까' 생각하다가 서툰 철학에 빠지며 정체성의 일부가 형성됐다.

어린 시절 체득한 것 중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 자연의 섭리. 내 작업 전반에 흐르는 정서다. 어릴 적에는 태풍이 온다는 뉴스를 들으면 마음이 어두워졌다. 부모님의 포도 농장이 날아가지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하던 기억이 있

다. '인간의 의지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정서와는 거리가 멀고, 모든 것은 자연의 순리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게 인간의 욕망을 애처롭게 보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굴과 아이>라는 에세이를 펴낸 바 있다. 내면의 성찰을 무척 솔직하게 담았는데, 평소 문학 작품에서도 영감을 얻는 편인가? 이성복 시인의 책을 무척 좋아한다. 시인의 고향이 상주인데, 내 고향과 가까워서인지 시를 읽으면 그가 어떤 정서를 갖고 있는지 알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시골을 근간에 둔 바탕 때문에 정서가 동시대적인 것과 동떨어질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언제 보아도 무척 세련되고, 현대적인 인상을 준다. 나도 미학적으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생각한다.

여러 인터뷰에서 겸재 정선, 반 고흐 등 시대에 구애 없이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에 영향 받는다고 말했다. 작품을 찾아볼 때 어떤 방식을 따르는가? 대학 시절, 학교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수많은 도록을 봤다. 그때는 작품의 정수를 이해하기 쉽지 않았고 그저 신기하게 보기만 했다. 뉴욕에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작품을 많이 감상하고, 벽화 등을 실제로 보면서 한 화가의 행위가 유구한 세월을 지나 형상을 남기고, 시간을 초월해 내게 와 닿는 걸 경험했다. 과거 화가들은 무수한 노동을 감내하며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방법을 고민할 때 과거에 쌓인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 가장 좋아하는 작가는 고흐다. 고흐의 모든 그림에서는 순수하게 '그리고 싶어 그린' 싱싱한 선을 볼 수 있고, 작가의 영혼이 느껴지기에 무엇과 비할 수 없는 감동을 받는다.

이른 나이에 주목받으며 '미술계의 아이돌' 같은 수식어가 붙기도 했는데, 정작 어떤 수식을 남기고 싶은가? 진실한 작가. 갑자기 유명해지거나 일약 스타가 된 이들의 통증을 비슷하게 경험했다. 인기와 관심은 감사하지만 노하우도, 경험도, 판단력도 부족한 시기에는 가혹하게 느껴졌다.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한없이 폐기하고, 망치는 걸 두려워했다.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이제는 망치다가 또 그리다가, 이따금 좋은 그림을 그려내는 과정을 우직하게 반복하고 싶다. 쉽게 흔들리고, 쉽게 마음이 어지러워져 보았기에 평정심과 일상을 유지하는 작가가 되고 싶은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는 말이지만 순수하게 '그리고 싶은 마음'과 커다란 지향만 남겨둔 채 그리는 상태에 도달하고 싶다.

EDITOR 안서경
PHOTOGRAPHER 이창화 COOPERATION 국제갤러리(735-8449)

1 작업실 벽 한편에 붙어 있는 이번 전시를 위한 A4 남짓한 사이즈의 유화 드로잉. 과수원, 연인, 고양이와 꽃 등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소소한 풍경을 담았다.
2 원체 꽃을 좋아해 화병에 꽂아두고 보다가 시들면 시든 모양대로 또 그린다.